#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 내용 분석

주윤하 · 엄철주\*

(전남대학교)

Joo, Yunha & Uhm, Chul Joo, (2019). Content analysis of reading passages of North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in the Kim Jong-un er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4), 21–3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passages' them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textbooks in terms of the above characteristics. To this end, we analyzed three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and the related national curriculum which were revised in the Kim Jong-un era. The results show that topics such as science and environment were introduced most frequently in the English textbooks. In addition, various topics such as school life, foreign cultures and stories appeared in the reading passages in a balanced way. This confirms that North Korea attempts to teach English through themes of a wide range of topics. And some materials that support socialism and the Kim Jong-un regime were also found. Interestingly,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no materials containing anti-American or anti-South Korean attitudes were found. Comparing the contents of two Koreas' English textbooks, we found that English textbooks in North Korea deal with themes similar to those in South Korea that follow the standards set forth in our curriculum.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understand a glimpse of reality, which is reflected in the textbooks, of North Korea's English education.

**주세어(Key Words):** 북한 영어교육(North Korea English education),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North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 남·북한 영어교육 과정(English National Curriculum in South and North Korea),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 1. 머리말

최근 북미 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향후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 관심과 이목이 집 중되고 있다. 남북한 통일, 또는 전반적 교류 확대의 시대가 찾아온다면 평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생긴 문화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넘어서야하는 사회통합의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과 달리 남한은 일상 언어생활 가운데 영어적인 표현과 상품 이름 등이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탈북학생들이 남한의 기본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서구 문화권에서 들어 온 단위나 개념, 동화 이야기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점(이현주, 2015)을 볼 때, 남북한의 외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국가 수준에서 검증된 자료로서 학습자들에게 국가의 교육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북한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연구하고 이를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해보는 것은 사회적 통합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영어교과서의 읽기 지문 내용 분석은 젊은 지도자의 통치하에 변화하고 있는 북한 교육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sup>\*</sup> 제1저자: 주윤하, 교신저자: 엄철주

Dulay, Burt 그리고 Krashen(1982)에 의하면 언어 교육은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에게 새로운 언어 환경을 조성해줄 때 시작되며, 교과서의 적절한 소재 선택과 배열(sequencing)은 학습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다. 교과서에 학습자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자료가 많을수록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자극되어 학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보다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지니게 한다(Dornyei, 1994). 또한 교과서의 소재에는 학생의 흥미와 배경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Dubin, Olshtain, 1986), 교사의 지도상의 이점이나 학생의 정서적 측면과 실용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Fein, Baldwin, 1986). 이러한 기준은 북한의 영어교과서 내의 독해 지문 분석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중등학교 영어교과서 역시 국가의 교육 방침과 목적에 따라 집필된다고 볼 때,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육, 더 나아가 중등교육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북한의 영어 교육 정책이나 영어교과서 사용 어휘 분석, 말하기과업유형의 단순 분석에 치중한 반면에 교과서의 소재 및 내용 분석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이후 2013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3권의 소재 및 내용을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개정 전후 변화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가자료(supplementary reading)분석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을 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정권의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과 부가자료에 나타나는 소재 및 내용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개정 전·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김정은 정권의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읽기 지문 소재와 남한의 영어교육과정에 제시된 소재를 비교했을 때. 차이 및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북한의 영어교육과정 및 교수목표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전반적 12년제 교육강령을 통해 학제개편을 단행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일부 교과목을 신설, 폐지, 통합하고 수업 시수를 조정하였는데, 특히 과학기술교육, 정보화교육 그리고 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과목을 신설하여 체제 옹호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의 경우, 새로운 교과서를 발행하고 이수 시간을 늘려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 2015).

김정은 집권기의 교육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조정아 외 3인, 2015). 첫째,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걸 맞는 인재로 창조형, 실천형 인재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육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 정책 기준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기존 6년제였던 중등학교를 2개로 분리하여 유-초-중-고의 4개 학교 급 체제로 학제를 개선하였는데 이는 직업 직전단계 또는 대학 진학 준비단계인 후기 중등교육의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김진숙, 2017). 북한과 남한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북한	남한
취학 전 1년 유치원교육	취학 전 유치원 교육 자율 선택
소학교 5년	초등학교 6년
초급중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표 1. 남·북한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강령은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서로 교육의 구조와 목적,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였다. 교육 강령은 학교 전반의 총체적인 학업진행과정과 학년별 과목 및 시간 수를 규정하는 과정안과 학과목의 교수과정조직과 교수내용 및 교수방법을 규제하는 교육강령의 중요 구성부분인 교수요강으로 구성된다(김진숙, 2017).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법과의 관련성, 전국 공통의 기준이자 지역 및 학교 수준 교육의 대표성 그리고 공식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북한 영어교과서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수집된 교육강령의 내용과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북한의 2013년 중등영어과 교육과정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등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고급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급중학교의 영어 교수 목표와 학년별 교수 목표는 다음 표 2와 3과 같다(배제이, 2015).

표 2 고급중학교 영어 교수 목표

no.	교수목표
	스스로 깨우쳐가는 자세로 영어를 학습하며 다른 학생과의 협력 학습, 발표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와 방법 등을 조절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일상생활 회화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3	복합문 구조의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자기 견해와 함께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4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표 3. 학년별 영어 교수 목표1)

학년	교수목표
	1. 지각적이며 적극적인 학습태도로 점차 자기 학습목표와 방법을 조정해 나가게 한다.
1	2. 요청, 사과 등 일상생활회화 10-12개 문장으로 타 학과목 연관 주제 본문 내용을 듣고 말하기를 한다.
1	3. 복합문구조문장 속으로 읽고 본문내용 파악, 35-50개 단어 복합문 문장 짓기, 영어 과외 도서를 사전 도움 없이 이해 능
	력을 소유한다.
	4. 북한과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 사이의 언어생활 차이를 알고 언어실천에 적합한 계기에 이용하게 한다.
	1. 비교적 강한 학습의식, 열의를 가지고 협력활동, 학습과정과 결과 평가,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게 한다.
	2. 허락, 약속 등 일상생활회화를 12-14개 문장으로 듣고 말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2	3. 복합문구조문장을 유창하게 읽기 통해 본문내용파악, 50-70개 단어 복합문 문장 짓기, 영어 과외 도서 이해 능력을 소유
	한다.
	4. 위의 4번과 같음.
	1. 영어 학습에 강한 자신심을 가지고 지속, 자각적 학습태도 유지, 명확한 학습 목표와 방법, 활동구현을 한다.
	2. 충고, 확신 등 일상생활회화 14-16개 문장으로 타 학과목 내용주제 본문을 듣고 정보도출 후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말
3	하는 능력을 가진다.
	3. 복합문구조문장을 읽고 본문 내용을 파악한다. 70-100개 단어 문장 짓기, 영어 과외 도서 이해능력을 소유한다.
	4. 위의 4번과 같음.

#### 2.2 북한 영어교과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머리말은 교육과정과 김정은의 교시를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어 내용분석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김정은 정권의 개정된 영어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유희연, 김정렬, 2018; 홍정실, 김정렬, 2019)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교과서 머리말에 제시된 집필 방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들은 개정 전 교과서의 머리말에 언급된 교과내용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문예 소설에 국한하여 사회주의 사상 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에들어서 나타난 큰 변화라고 강조하였다.

다음 표 4는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머리말의 일부이다. 북한 영어교과서의 머리말은 모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로 시작하고 '학생들은 고급중학교시기에 외국어에 정통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로 마무리된다. 해당 문구는 2, 3학년 교과서에서도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sup>1)</sup> 배제이(2015)가 박사학위논문에서 제시한 학년별 영어 교수 목표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편집하였다.

표 4. 영어교과서 머리말2)

학년	교수목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	≪모든 과목 공부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외국어공부에서는 학생들자신이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교재를 많이 리용하면서
	강의에서 배운것들을 익혀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고급중학교시기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과 함께 외국어를 소유하여야 미래의 유능한 인재로 될수 있는 과학리론적
	기초를 튼튼히 닦을수있다.
-	영어교과서는 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친근한 길동무, 다정한 벗이 되도록 학교생활들과 콤퓨터, 음악 등 흥미있는 내용들
	을 주제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어를 빨리, 정확히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며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는 원칙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고급중학교시기에 외국어에 정통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어학습은 눈에 익히기도 하고 소리를 내여 류창하게 읽기도 하며 반복하여 써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읽는것을 들어
2	보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우주와 환경, 동물 등 흥미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한 언어자료들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 나라 혁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동무들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조선혁명을 위하여 공부한다는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 1권 218페지〉
	고급중학교 3학년은 학생들이 사회 및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과 함께 외국어실천능력을 기본적으로 완성해나가는 매우 중
3	요한 단계이다.
	고급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는 체육, 콤퓨터, 건강 등 흥미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하고 부단한 숙련과 반복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효과적인 학습방법들을 적극 구현해나감으로써 1학년과 2학년에 이어
	더 높은 수준의 영어지식을 습득하고 실천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북한 영어교과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각급 학교의 명칭이 비슷하지만 계속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학제는 1978년에 6년제 중등학교를 고등중학교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고등중학교에서 중학교로 개칭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따라서 2002년까지 출판된 교과서에는 고등중학교로, 그 후에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중학교로 칭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기에 2013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제를 개편하면서 초급중학교(3년)와 고급중학교(3년)로 분리하였다(홍정실, 김정렬, 2019).

북한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휘 차원의 분석이 다수이며(김정렬, 김지영, 2017; 김정렬, 황서연, 2018a; 2018b; 김지영, 이제영, 김정렬, 2017a; 2017b; 유희연, 김정렬, 2019; 황서연, 김정렬, 2017) 내용 측면의 분석은 학위논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김단솔, 2017; 남은주, 2009; 안지민, 2012; 유명근, 2008; 이나리, 2011; 이재원, 2014; 이효선, 2017; 정소영, 2010). 박약우, 김진철, 고경석, 박기화 그리고 정국진(2000; 2001)은 통일 대비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 전 학년 북한 영어 교과서를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여러 학자들의 교재 분석 모형을 보완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박약우 외 4인(2000; 2001)의 연구를 근거로우상화, 정치사상교육, 남한과 서구에 대한 왜곡과 비방, 공산주의 도덕, 과학 그리고 내용 중심 학습으로 지문의 소재를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영어교과서 지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북한 교과서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남·북한 교과서 비교 연구로 나뉠수 있다. 북한 교과서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정소영(2010)은 북한 고등중학교 1,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나리(2011)는 고등중학교 3,4,5 학년 교과서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읽기 지문이 타 교과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사회주의 교육 원리를 내세우는 북한의 교육이념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안지민(2012)은 북한 교과서는 듣기 비중이 거의 없는 읽기 위주의 교과서라고 하였고, 읽기 지문의소재가 매우 제한적이며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및 찬양 그리고 과학관련 지문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왜 북한이 가장 최고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재원(2014)은 교과서 지문을 북한 내부에 관련한소재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공통적소재 외에도 세계 인구증가, 식량부족, 환경 문제 등의소재도 등장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경제 위기와 실리주의 추구, 외교 문제 그리고 세계화와 외부정보 유입 등을 언급하며북한 교육사회가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북한 영어교과서 역시 이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sup>2)</sup> 북한교과서에 작성되어 있는 한글은 모두 북한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띄어쓰기와 철자가 우리말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영어교과서에 등장한 머리말을 한글서식으로 변환하는 것 보다 북한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김정은 정권에 개정된 북한 영어교과서 연구에서 유희연과 김정렬(2018)은 북한의 2013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영어 교과서 구성 체제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외형 및 집필 방향의 변화, 개정 전후의 머리말 및 구성 체제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머리말에 제시된 읽기 지문의 내용 변화에 대한 단순 분석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홍정실과 김정렬(2019)은 2013년 개정 교육과정의 초급중학교 3학년과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2권을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의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일상생활 소재가많이 나타났으며, 통합형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과서 내의 다양한 소재분석 연구 외에 유명근(2008)과 이율희(2015)는 교과서 내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 문화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도 김정은 정권 이전의 영어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와 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인종차별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 한다고 하였다.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로 남은주(2009)는 김정일 정권의 영어교과서 소재와 문화를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하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소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한의 교과서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며 문화 학습을 언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교과서는 학습 소재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과 문화 왜곡 등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특징이 탈북 학습자들이 남한 학습자들과의 영어 실력 차이를 느끼게 되는 이유라고 하였다. 이효선(2017)은 김정은 정권의 개정 초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1권을 남한의 영어교과서와 1권과 비교연구 하였는데 남한 교과서에서는 일상적인 소재 중에서도 인간의 가치관을 다루거나 동물, 환경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 반면, 북한은 이들에 대한 비중이 낮고 다른 학과목과 통합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체의 틀에 대한 일반적인 비교에 머물러 소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3. 연구방법

#### 3.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3권의 목록은 다음 표 5와 같다.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는 단원 수만큼 부가자료(supplementary)<sup>3)</sup>가 책의 뒷장에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	발행 연도	본문 수 부가자료 수		저자
고급중학교 1	2013년	9	9	최죽송, 박철호, 오선해, 황철진
고급중학교 2	2014년	8	8	김명옥, 김혜영, 전원제, 리무일, 박철호
고급중학교 3	2015년	7	7	박철호, 오선해, 황철진, 리무일

표 5. 북한 영어교과서 목록

#### 3.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북한의 2013년 교육과정에 개정된 영어교과서의 각 단원에 실린 읽기 자료와 부가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교과서에 포함된 부가자료의 활용 방법을 명시한 북한 문서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본문과 부가자료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여 두 지문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 영어교과서의 소재 분류는 박약우 외 4인(2000; 2001), 배제이(2015)와 홍정실과 김정렬(2019)의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과서 분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 목적에 맞게 학교생활, 자연환경, 과학(자), 외국문화, 동화, 우상화, 개인생활 그리고 기타의 8가지 항목으로 소재를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과서가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적 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을 담았고 영어를 통한 다른 교과와의 내용통합을 지향하였다는(유희연, 김정렬, 2018) 점을 고려하면 분석기준으로 타당하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2015)의 영어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남·북 영어교과서의 소재 차이를 살펴보았다.

소재 분류의 정확성을 위해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2인의 연구자가 각자 1차적으로 분류를 한 후, 서로 차이가 있

<sup>3)</sup> 본 연구에서는 박약우 외 4인(2011)을 참고해 부가자료라고 번역해 사용한다.

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재분류하는 절차를 거쳤다.

# 4. 결과 및 논의

## 4.1 고급중학교 읽기 지문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의 읽기 지문과 부가자료의 소재를 각각 분석해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급중학교 읽기 지문은 짧지만 지문의 내용이 한 개의 소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주요 소재에 (○)를 표시하였고 부가적인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를 표시하였다.

#### 4.1.1 본문 소재 분류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본문의 읽기지문 소재를 학년별 단원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교과서	읽기 지문 제목	학교생활	자연환경	과학(자)	외국문화	동화	우상화	개인생활
	1. I'm a Student at Senior Middle School	0		Δ				
	2. How I Learned English	0						
	3. People and Planet Earth		0					
	4. Music and films*				0			
1	5. Energy in the Future			0				
	6. How to improve your memory			0				
	7. History of Length Units			0	$\triangle$			
	8. Are you good at computer?	Δ		0				
	9. How Happy They Are!						0	
	1.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	0						
	2. Heating System			0	$\triangle$			
	3. Healthy Food*							0
2	4. Satellites			0				
Z	5. A Young Winner	0					$\triangle$	
	6. Small Islands in Danger		0					
	7. Same Gestures, Different Meanings				0			
	8. A Fairy Tale Comes True							0
	1. Sporting Activities*				0		$\triangle$	
	2. A visit to Dr Kim			0				
	3. How to make requests?	0	$\triangleright$					
3	4. Cold weather care		0					
	5. Healthy trees		0				Δ	
	6. From liquid water into vapour			0				
	7. How his dream came true			0			Δ	

표 6. 본문 소재 분류4)

고급중학교 본문의 읽기 지문은 과학(자)와 자연환경에 대한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어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져 나타나는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과서의 머리말에서도 연속적으로 과학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는 공산주의 교육이념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약우 외 4인, 2001). 조정아 외 3인(2015)은 김정일 집권기에 외국어교육의 목적이 전쟁준비에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변화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영어 교과와 과학 지문의 주제통합은 북한이 영어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경에 과학 기술 수준의 세계화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국가 전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정채관, 조정아, 2017).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에 관한 소재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주로 학습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표3의 고급중학교의 학년별 영어 교수 목표에 따르면 각 학년의 1번 항목에서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학습방법을 가

4) 본문의 읽기 제목은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에 표기 된 대로 작성하였다. 읽기 지문에 제목이 없는 경우는 단원명을 기재하였고 \*표시 하였다.

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교수 목표는 교과서에서도 나타나는 데,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머리말에서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여 눈으로만 읽는 것 뿐 만 아니라 소리 내어 읽기(read aloud)라는 읽기 학습 방법을 제시하며 영어를 읽기 외에도 쓰기와 듣기, 말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머리말에서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며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머리말 역시, 숙련과 반복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고급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 읽기 지문에서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북한의 학습자들에게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How I Learned English When I was at school, I enjoyed learning English. Here is some of my advice. 1. When I spoke English, I didn't worry about my accent too much. It was OK – other students could usually understand me. I often listened to CDs and imitated the speakers to make my pronunciation better. 2. When I came across a new word in the text, I tried to guess the meaning. Later I checked it in the dictionary. 3. I took a lot of notes when I learned new grammar rules. After class I tried to do grammar exercises with these notes. 4. When I read a text, I tried not to put it into Korean. I tried to think in English. 5. I usually made mistakes when I was speaking. But I wasn't afraid

of making mistakes. I thought communication was more

important. Later my teacher and classmates corrected my

Do you enjoy learning English every day? Perhaps you may say "Yes' but it is not so easy to learn English. Here are three strategies to help you learn faster and remember more Strategy 1 Set goals Have you ever set goals for learning English? When you set goals, you decid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learn. Then you make a plan to help you reach your goals. Maybe one of your goals is to improve your pronunciation. For example, you can record your voice while you read aloud. Then listen to the recording and check your pronunciation. Strategy 2 Look for opportunities to practise English Try to speak with your friends or teachers in English. Don't worry about making mistakes. And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For example, if your teacher uses a word that you don't understand, ask a question like "What Strategy 3 Guess Don't try to understand every new word. When you read, concentrate on clues such as pictures or other words in the sentence to help you understand. You can also make guesses when you are talking to people. For example,

Set goals, look for opportunities to practise, and guess. Try these things, and you will learn more English!

help you guess the meaning.

look at their faces and hand gestures - the way they move their hands - to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2단원 읽기 지문〉〈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1단원 읽기 지문〉그림 1 영어학습 방법을 다룬 읽기지문<sup>5)</sup>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2단원 How I Learned English의 지문은 영어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외에도 발음과 피드백을 통해 영어를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가지에만 치중하지 않는 통합적인 능력 향상을 강조한다. 남은주(2009)는 김정일 시대의 중학교 6학년 교과서 소재 중 영어 학습방법이 세 개 장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학습방법 소개는 김정은 시대 교과서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북한의 교과서 머리말에서는 외국어에 정통할 높은 목표를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1단원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에서는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으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단원에서는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리 내어 읽고(read aloud) 녹음해 들어볼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영어표준발음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정채관, 2018) 북한교육계에서 국제화시대에 맞춰 영어 발음 이해도(intelligibility)를 고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정아, 2016). 그리고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머리말과 해당 교과서 지문에서는 북한의 영어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해 영어의 통합적 능력 향상을 키워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통치자의 지침에 따라 영어교수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방법을 따라하고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정채관, 2018). 그리고 김정일이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 했던 상황(이병민 외 2인, 2005)이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는 영어 교재 및 도구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에 관한 선행연구(남은주, 2009; 안지민, 2012; 이나리, 2011; 이재원, 2014; 이율 회, 2015; 정소영,2010)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남한과 서구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북한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그리고 홍정실과 김정렬(2019)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미 제국주의 비판 및 북한 사상 옹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은 각 지문에서 1번씩 등장하였

<sup>5)</sup>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는 스캔파일(pdf)이며, 연구에 제시된 북한 교과서 읽기 지문은 스캔파일에서 복사하였다.

으며 미 제국주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북한이 다른 문화에 대한 지문을 다루고 있으며 많은 범위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전의 교과서와 내용적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나라별 문화 소재 및 인식 양상을 살펴보면, 정보전달의 소재로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7단원에서 'metre'에 대해서 설명하며 America에서는 'meter'라고 표기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졌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7단원에서는 미국에서 검지의 다양한 제스쳐와 의미를 설명하고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5단원에서는 미국의 인디언들 중에 약사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내용으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북한 교과서에서 중국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7단원에서 등장한다. 해당 지문에서는 북한의 이승기 박사(Ri Sung Gi)가 비날론 (Vinalon)을 개발했지만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국가와 인민을 위해 더이상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사례가 부정적이며 학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머리말은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로 끝을 맺는다. 김정일·김정은 부자 우상화가 주제통합측면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북한 영어교육의 도달기준으로 과목교수를 통해 북한 학생들을 김정일 애국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서도 확인가능하다(정채관, 2018).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을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으로 번역하여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각 교과서의 읽기 지문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June, Juche 101(2012). A lot of children came to Pyongyang by air, by train and by bus.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invited them to Pyongyang. Chung II and Hyo Sim were among them.

Chung II came from an island in the West Sea of Korea. He was one of the seven children on the island. He was tall and strong. His father was working at the lighthouse. Chung II said, "My family used to be an ordinary one, but now it isn't. Everyone knows me and my family because I have met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When I leave school, I'll become a soldier who is loyal to him."

Hyo Sim came from a village far away from Pyongyang. She was of medium height and pretty. Her parents were taking care of the forest. Hyo Sim said, "I used to dream about the great festival in Pyongyang. My dream has come true. I'll never forget the great honour and happiness. I'll remain true to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Not only Chung II and Hyo Sim but also all the children in our country have made the same decision. A bright future will be theirs forever.

A Young Winner

Sun Hui won the first prize in an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She is only twelve years old.

She is from Pyongyang, the capital of the DPRK. She lives there with her family. Her parents are both workers. She's got a sister who is three years younger. Sun Hui goes to Pyongyang Music School where a lot of musical prodigies have studied.

She has been playing the piano since she was five years old at Pyongyang Kyongsang Kindergarten. One day she sat at the piano and her teacher knew immediately that she was special. Her teacher said, "She wasn't afraid of the instrument. She was a gifted player. I've been teaching young musicians for years, but this is something different." At the age of seven she entered Pyongyang Music School which is well-known at home and abroad. There she has been developing her musical talent. When she was seven, she played with a famous orchestra in her country.

She says, "It was amazing. I really didn't think I would win the prize. I still can't believe it — sometimes I think I'm dreaming, and in a minute I'll wake up!t it is thanks to the warm care of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who dearts loves our children. Learl What to share this honour with our people."

A A

Sporting Activities
The Summer Olympics last for 16 days and the
Winter Olympics last for 12 days including the day
of the opening ceremony. In the Summer Olympics
the sports men and women compete in more than 30
events including running, swimming and football.
In the Winter Olympics they compete in skiing,
skating, etc.

The number of countries sending athletes has increased from 13 at the first modern Olympics to nearly 200 in the twenty-first century, Our country started to send the athletes to the Winter Olympics in 1964 and the Summer Olympics in 1972. Our athletes have won a lot of medals in several events. In the 2012 London Olympics our athletes won

four gold medals (one in judo and three in weightlifting). Now our country is developing into a sports power under the wise leadership of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9단원 읽기 지문〉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5단원 읽기 지문⟩그림 2 고급중학교 교과서 읽기 지문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1단원 읽기 지문〉

해당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9단원 How Happy They Are!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김정은에 의해 평양에 초대되었는데 이에 어린이들이 감동하여 남자 어린이는 군인이 되어 충성할 것이라 하며 여자 어린이는 김정은에게 영원히 진실(true)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마음이며 밝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5단원 A Young Winner은 Sun Hui의 부모님은 노동계층 (workers)이지만 음악재능을 통해 세계 음악 대회에서 12살의 나이로 대상을 탔는데 이와 같은 영광을 어린이를 사랑하는 김정은의 따뜻한 보살핌(warm care) 덕분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1단원 Sporting Activities은 올림픽에 대한 내용인데 김정은의 현명한 리더십(wise leadership)하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유도와 역도에서 4개의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재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홍정실, 김정렬, 2019).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각 지문의 내용들은 선행연구(남은주, 2009; 안지민, 2012; 이재원, 2014; 이율희, 2015; 정소영,2010)에서와 같이 북한이 우상화의 수단으로서 영어교과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정은 이전의 교과서에서 우상화의 주된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은 부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고 항상 그들에게 충성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어 학습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세뇌시키려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는 3학년 교과서에서만 1번씩 등장하는데, 주요 소재가 아닌 부가적인 소재로 등장한다.

다음의 그림 3은 우상화 내용이 포함된 읽기 지문이다.

#### Healthy trees

Healthy trees are important to us all. Trees provide shade, beauty, and homes for animals in the nature. Trees give us products like paper and wood. Trees can give us all this only if they are healthy. They must be well cared for to remain healthy.

Healthy trees are beautiful. They make our world a pleasant place to live in. Unhealthy trees are not so beautiful and they make the world less pleasant. Healthy trees help to cool and clean the air. Unhealthy trees cannot help or protect the environment. Trees, like people, are disturbed by changes around them.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is a major cause of damage to trees.

Signs of tree disease may not be seen right away. Sometimes it takes many years for an affected tree to die. Trees are often damaged by changes at ground level. Roots can be damaged when heavy building equipment passes over them. Root injury, not trunk injury, is most likely to kill trees.

When homes are being built, concrete, bricks, or too much soil may be put around trees. This can change the amount of water and air that the roots get. Trees with roots covered in this way cannot "breathe". Putting a small well around the trunk of a young tree may help. Trees should not be planted until all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You can prevent damage to older trees near construction sites by putting fences around them. Remember, careless building and road construction kills trees.

In our country a lot of trees have been planted on the mountains and they are being kept healthy by the people with  $\bf Kim\ Jong\ II's$  patriotism in their mind.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5단원 읽기 지문〉

#### How his dream came true

Vinalon is an artificial fibre used for making clothes, tent, net, rope, etc. It is made from limestone and smokeless coal. It is so strong that it hardly breaks up even in sea water. In addition, it easily takes in liquid through its surface. Vinalon doesn't usually let heat pass through; this means clothes made of vinalon make people feel less cold. Now it is replacing cotton which needs a lot of land and hard work to produce.

Vinalon was invented by Ri Sung Gi, one of the well-known chemists in the world. He was born in 1905. In 1939 he succeeded in making vinal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fter that he began his research on producing vinalon by an industrial method. However, he couldn't continue; he was sent to prison because he refused to work for the Japanese imperialists during the World War II. He wished that his true fatherland had existed. He wanted to work for the country and the people.

His dream came true under the warm care of the great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 During the Fatherland Liberation War the great leader helped him continue his research on producing vinalon by the industrial method and Dr Ri's team finished it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 result, the first vinalon factory started its production in May 1961. Since then we have had our own independent vinalon industry. Now it has developed into a big Juche-type modern industry thanks to the wise leadership of our Party. If he hadn't come into the bosom of his true fatherland, Ri Sung Gi wouldn't have realized his dream.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7단원 읽기 지문〉

그림 3 북한 영어교과서 지문의 우상화 내용

5단원은 자연환경에 대한 지문이 주요 소재로 건강한 나무(healthy trees)의 중요성과 미관상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북한에 심어진 많은 나무는 김정일의 애국심(Kim Jong II's patriotism in their mind)에 의해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며 읽기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7단원은 비날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승기 박사의 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의 따뜻한 보살핌 하에(under the warm care of the great leader Generalissimo Kim II Sung)가능하였다고 한다. 두 지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 이전의 통치 권력의 위대함을 청송할 때 등장하였다. 남은주(2009)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들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1, 2학년 교과서보다 3학년 교과서에서 우상화의 내용이 강화되어 나타났다.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머리말에는 학교생활, 컴퓨터, 음악, 우주와 환경, 동물, 체육 건강 등의 주제로 한 영어 읽기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학습자들이 흥미로운 내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급중학교 영어교 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정아 외 3인, 2015)에서는 과학 등 다른 교과 내용과 통합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고급중학교 교과서에서 다양한 소재를 융합해서 내용중심의 영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홍정실과 김정렬(2019)은 김정은 집권기의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내용주제 측면에서 주체사상 및 영도자 우상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관련 내용이나 자연과학, 컴퓨터와 같은 내용통합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1, 2학년 교과서를 함께 분석한 결과, 이는 3학년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고급중학교 교과서에서 전반적으로 개정된 특징으로 확인하였다.

#### 4.1.2 부가자료 소재 분류

고급중학교 전 학년의 단원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지문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말장난(pun)이나 익살스러운 지문을 읽기 자료로 활용하였다. 말장난과 익살스러운 지문은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부가자료에만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기타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그림 4는 기타의 항목으로 분류한 읽기 지문의 예시이다.

#### 2. Mr What and Mr Not

Mr Knott was a teacher. He taught in a big school in London. He lived a long way from the school, so he was usually quite tired when he got home.

At nine o'clock one evening when he was in bed, the telephone bell rang in the hall of his small house. So he went downstairs, picked up the telephone and said, 'This is White bridge 3165. Who's speaking, please?'

'Watt,' a man answered.

'What's your name, please?' said Mr Knott.

'Watt's my name,' was the answer.

'Yes, I asked you that. What's your name?' Mr Knott said again.

'I told you. Watt's my name,' said the other man. 'Are you Jack Smith?'

'No, I'm Knott,' answered Mr Knott.

'Will you give me your name, please?' said Mr Watt.

#### 3. A good man

One night there was a heavy snowstorm, and in the morning Mr Smith's garden was full of deep snow. Mr Smith wanted to take his car out, so he paid a man to clean the path from his garage to his gate. He said to this man, 'Don't throw any snow on that side, because it will damage the bushes in my garden and don't throw any on the other side, because it will break my fence. And don't throw any into the street, or the police will be angry.' Then Mr Smith went out. When he came back, the path was clean and the snow from it was not on the bushes, or the fence, or the street. Mr Smith was very pleased – until he opened the garage to get his car out! The garage was full to the top with all the snow from the path, and his car was somewhere under it all!

그림 4. 북한 고급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부가자료 기타 분류 지문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부가자료 지문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제시한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소재인 학교생활, 자연환경, 과학(자), 외국문화, 동화, 우상화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학년별 단원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부가자료 소재 분류

교과서	읽기 지문 제목	학교생활	자연환경	과학(자)	외국문화	동화	우상화	기타
	1. No trouble with Greek							0
	2. Mr What and Mr Not							0
	3. A good man							0
	4. Secrets from trees		0					
1	5. Deserts are growing!		0					
	6. Robots			0				
	7. Curlylocks and the three bears					0		
	8. Bamboo		Δ			0		
	9. Colour			0				
	1. The Lion and the Mouse					0		
	2. The Boy and the Wolf					0		
	3. The Farmer, the Boy, and the Horse					0		
2	4. Life in Space			0				
L	5. Think of the Future!		0					
	6. Two Healthful Plants		0					
	7. Animals in Danger		0					
	8. How to Keep a Bird Diary		0					
	1. Monkey Looks for Trouble					0		
	2. Tiger and the Big Wind					0		
	3. The Spider and the Turtle					0		
3	4. The Mystery of the Universe			0				
	5. Medicine, Mind and Magic			0	Δ			
	6. Great Inventions			0				
	7. History of the Microscope			0				

본 연구 분석에 의하면, 고급중학교 부가자료의 소재는 과학과 동화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본 문에서와 같이 과학과 자연환경을 다룬 소재가 많이 등장하였다. 이병민과 양현권, 권오현(2005) 또한 개정 전의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본문 및 부가자료에서 과학이나 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가자료의 읽기 지문은 과학 및 자연환경과 관련한 지문을 제외하고는 본문 내용과의 연계성에서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과 우상화의 내용도 등장하지 않아 본문과 부가자료 읽기지문이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급중학교 각 교과서의 부가자료에서는 이솝 우화 및 유럽의 동화가 등장한다. 다음의 그림 5는 동화로 분류한 읽기 지문의 예시이다.

#### 1. The Lion and the Mouse

One day a lion was sleeping. A mouse ran over his face and woke him up. The lion was angry. He caught the mouse and said, "I'll eat you up. That will teach you not to wake up the king of the animals!"

But the mouse cried, "Please don't eat me. I didn't want to wake you up. I'm very sorry. Please let me go. You will be glad some day. If you do this for me, I will do something for you."

The lion laughed at the mouse. "A little animal like you? How can you help a big, strong animal like me?" But he also thought, "This mouse really is very small. He's too small for dinner. He's even too small for a snack." So he let the mouse

A few days later, some hunters came and caught the lion. They tied him to a tree with strong ropes. Then they left him and went to the village. They wanted to keep the lion and sell him to the zoo. But

they needed more men.

The lion roared and roared. He was very angry, but he couldn't move. The mouse heard the roaring and ran to him.

"Now you will see what I can do for you," he said. Little by little, the mouse cut through the ropes with his teeth. Soon the lion was free.

(one of Aesop's Fables from Greece)

#### 3. The Spider and the Turtle

One evening Spider was about to have dinner. He had some very nice, hot yams (sweet potatoes) to eat. He heard a knock on the door. It was Turtle, who was returning from a long trip. He was very tired and very hungry.

"Could I please have some of your yams?" he asked Spider. "They smell so good."

Spider did not want to give Turtle any yams. He wanted to eat them all himself. But he didn't want people to say bad things about him. So he said, "Come in, my friend. Come and sit down and have some yams."

But when Turtle put out a hand to take some food, Spider said, "Wait! Look at your hands. They're very dirty! In this country, people wash their hands before they eat. Please go and wash yours."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부가자료〉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부가자료〉

그림 5. 북한 영어교과서 부가자료 동화 지문

김정은 정권의 교과서 부가자료에서도 우화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현재 초급중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자료와 고급중학교에 해당하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료에 우화가 수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개정 전, 후 교과서 속 우화의 내용이 겹치지 않았다. 그리고 개정 전 교과서에 서구 문화권을 소개하기 위해 인용된 문학 작품들에는 의도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점인 빈부격차나 인종차별 등을 중심소재로 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유명근, 2008).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교과서에서는 이념을 위해 문학작품을 인용한 읽기 지문은 등장하지 않았다.

부가자료에서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동화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곰 세 마리'와 '양치기 소년'과 같이 우리가 어렸을 적 읽던 동화와 유사하다. 영어 동화는 남한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반면, 북한에서는 남한의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과서의 읽기 지문으로 등 장하였는데, 동화 지문의 문장이 짧고 내용이 재미있어 학습자들에게 흥미로운 소재일 수 있다. 남한에서도 학습자들에게 동화를 가지고 영어를 교육시켰을 때,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신장에 효과적이었으며, 흥미도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귀석, 이수경, 2009; 조규희, 2013; 하수지, 박기화, 2017; 홍명의, 허근, 2011; 황선희, 김지영,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 영어교과서 부가자료에 동화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북한이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동화와 기타로 제시한 부가자료의 지문들은 북한이 학습자의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영어교육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지문의 소재는 학습자에게 친숙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되어야 하지만 나이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급중학교는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며 교과서에 제시된 익살스러운 내용의 지문 및 동화가 남한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읽히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남・북한 교과서 읽기 지문의 수준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2. 남·북 영어교과서 소재 비교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북한 영어교과서 소재 분류표를 토대로 남한 교육과정과의 비교해 개정된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소재가 남한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 8은 남한 교과교육부(2015)에 명시된 소재 분류표를 기준으로 고급중학교 1, 2, 3학년의 교과서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표 8. 남・북 소재 비교

	1 분단 전시 그리기 보게			고급중학교		
no.	남한 영어교과서 소재	1	2	3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sqrt{}$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sqrt{}$	$\sqrt{}$	$\sqrt{}$		
4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5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6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sqrt{}$	$\sqrt{}$		
7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sqrt{}$	L		
8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sqrt{}$		L		
9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L		
10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sqrt{}$	L		
11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L		
12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sqrt{}$	$\sqrt{}$	$\sqrt{}$		
13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sqrt{}$		L		
14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			L		
15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sqrt{}$	$\sqrt{}$	L		
16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17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	$\sqrt{}$	$\sqrt{}$	$\sqrt{}$		
18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sqrt{}$	$\sqrt{}$	$\sqrt{}$		
19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1		

고급중학교에 등장하지 않는 남한 교과서의 소재는 19개 중 8개였다. 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소재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과학 분야와 기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을 우선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소재 분류의 결과에 따르면, 과학이나 우상화와 같은 소재만을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에 관련된 내용부터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소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그림 6은 이에 대한 예시이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3단원의 읽기지 문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아침식사를 해야 하는 중요성을 편지 형식으로 제시하여 학습자 개인의 건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 Dear Dr. John,

I'm writing to you to get your advice about breakfast. I met three friends and asked them. "Do you like a big breakfast or a light one?"

Tom said, "I have a light breakfast. Morning is the time when I'm very busy." Helen said, "I usually skip breakfast. But in the evening I have a big meal. My family sometimes go to the restaurants where we can have a big dinner." Mike said, "I like a big breakfast. I need energy for my daily activities." Who do you think is right?

I'm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Yours sincerely,

Jane

#### Dear Jane

There's an old saying: "Breakfast like a king, lunch like a prince, dine like a poor man." In most countries, dinner is the biggest meal of the day. So why does this saying tell us to eat a big breakfast instead?

The answer is in the word "breakfast" itself. It means the "breaking" of a "fast" – a long period without eating. The time between dinner and breakfast can be more than twelve hours, so the meal that breaks your fast is very important. It should be healthy and nutritious. The food that you have for breakfast gives you the energy for the most active part of your day.

It is good to have breakfast with a lot of protein and carbohydrates. One example is rice, soup and an egg. Another example is bread and milk. The important thing is to start your day with breakfast and get the nutrition that you need.

Yours sincerely, John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3단원 읽기 지문〉 그림 6. 북한 영어교과서의 내용통합 읽기 지문

다음으로 남한 영어교과서 소재의 2번 항목에는 가정생활과 의식주가 있다. 앞서 언급된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머리말에는 가정생활과 관련해 교과서에 구성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읽기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소영(2010)은 김일성과 김정은 정권의 초급중학교 1, 2학년의 영어교 과서를 분석하였는데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이 전체 내용의 23%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영어 학습초기 단계에 저학년 교과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고학년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이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의식주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소재는 남한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소재의 내용과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표시된 항목 중에서도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개인 복지 증진은 아니지만 교과서에 진로 문제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내용과 노동 하는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북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진로 및 노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평화, 안보, 통일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애국심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김정은 및 통치 권력에 대한 우상화와 주체사상이 등장한다.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 영어의 기능은 영어권 문화를 수용하고 나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를 전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가 아니었으며 단지 정해져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연습과 훈련을 위한 학습 대상으로서의 영어였다(박약우외 4인, 2011)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문화를 전달하는 내용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왜곡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는 들어서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7단원에 제시된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스처와의미'를 소개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과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부가자료에 제시된 서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여름 방학기간이 길어서 외국으로 휴가를 가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문화의 서술 내용이 이전과는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



Travelling in a foreign country can be exciting, but it can also be confusing. A professor who was teaching English in Bulgaria had a strange experience. One day he went to a restaurant for dinner. He asked the waiter, "Do you have stuffed cabbage today?" He nodded his head. The professor eagerly waited, but the cabbage never came. In that country, a nod means "no". In some situations we may have problems if we are not familiar with the gestures in different cultures.



Even simple greetings can be done differently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our country it is common to bow when we meet someone. In Europe people generally shake hands.

In North American countries, people usually raise an index finger and then bend and straighten it to call or ask someone to come

over. Or they raise the hand and curl the fingers towards them when they call someone. To get someone's attention they either raise their hand above their head or wave it. But it means "go away" in some other countries like Italy and

A simple response can be misunderstood as well. For example, the "thumbs-up" sign is commonly used to mean "Well done!" or "You're right!" However, it is considered a very rude gesture in some countries.

In short, when you travel to a different country, be careful about your gestures so that you won't upset anyone.



## 1. No trouble with Greek

Mr Day was a teacher at a school in a big city in the north of England. He usually went to France or Germany for a few weeks during his summer holidays, and he spoke French and German quite well.

But one year Mr Day said to one of his friends, 'I'm going to have a holiday in Athens. But I don't speak Greek, so I'll go to evening classes and have Greek lessons for a month before I go.'

He studied very hard for a month, and then his holidays began and he went to Greece.

When he came back a few weeks later, his friend said to him, 'Did you have any trouble with your Greek when you were in Athens?'

'No, I didn't have any trouble with it,' answered Mr Day. 'But the Greeks did!'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7단원 읽기 지문〉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부가자료〉

그림 7. 북한 영어교과서 외국 문화 관련 지문

# 5. 결론 및 제언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중 하나는 교육이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교과서이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영어 과목은 현재 유일하게 가르치는 공통된 외국어 과목이다. 따라서 영어 교과는 북한 중등 교육과정 변화의 방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교과 중 하나(정채관, 조정아, 2017)인 동시에 남북한 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의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외형, 서문, 구성체계와 같은 전체적인 틀에 대한 연구와 어휘 중심의 코퍼스 분석에 머물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같은 영역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 개정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읽기 지문과 부가자료의소재 및 내용적인 특징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와 비교해 개정 전·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남한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재 분류표를 바탕으로 하여 남, 북한 교과서의 소재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북한의 학습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개정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내용통합적인 영어지문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과학과 자연환경에 대한 소재는 교과서 읽기 지문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 하는 소재였다. 이는 북한이 자연과학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정 전 교과서와의 공통점으로 통치 권력의 우상화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을 비판하거나 왜곡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고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유럽에서 교육받은 현 북한 통치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자료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요 소재가 자연환경, 과학 및 동화였고 우상화, 학교생활 그리고 개인생활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문의 주요소재가 학교생활, 자연환경 그리고 과학이었는데, 부가자료에도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문 내용과의 연계성은 찾을 수 없었다. 고급중학교 교과서 부가자료에는 동화나 익살스러운 소재가 활용되어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동화와 같은 소재는 남한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등장하는 지문이어서 남·북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교육과정에 제시된 소재와의 비교했을 때, 북한이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읽기 지문을 구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남한에서 제시한 소재와 차이가 있었지만, 개정된 교과서에서 남한의 영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5)에 제시된 소재와 공통부분들이 관찰되어 남・북한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의 교육을 이해하고 통일 후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북한 교과서 특히, 영어 교과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양과 질 측면에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초급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북한의 중등 영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앞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김귀석, 이수경. (2009). 영어동화를 활용한 어휘 지도. *영어영문학21, 22*(3), 157-186.

김단솔. (2017). 북한의 영어교과서 분석: 중학교 1,2,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명옥, 김혜영, 전원제, 리무일, 박철호. (2014). *고급중학교 2*,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김정렬, 김지영. (2017). 북한 영어 교과서 특성 파악을 위한 코퍼스 구축. *영어영문학, 22*(2), 207-232.

김정렬, 황서연. (2018). 북한 제1중학교와 남북한 일반중학교 영어교과서 어휘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 지. &(6), 223-231.

김정렬, 황서연. (2018). 북한 제1중학교 영어교과서 코퍼스 기반 어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 439–458

김지영, 이제영, 김정렬, (2017), 코퍼스 기반 남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의 공시적 분석, *언어과학, 24*(2), 25-56.

김지영, 이제영, 김정렬. (2017).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의 통시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331-340.

김진숙. (2017).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평가와 전망 - 새로운 교육강령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법연구*, 17, 363-404.

남은주. (2009). 남북한 영어교육 실태 비교 연구: 남북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 대학교.

박약우, 김진철, 고경석, 박기화, 정국진. (2000). 남북한 중등학교 영어과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외국어교육, 7*(2), 163-194.

박약우, 박기화, 김진철, 고경석, 정국진. (2001). 북한 영어 교과서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박철호, 오선해, 황철진, 리무일. (2015). 고급중학교 3.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배제이. (2015). 북한 영어교육 연구 -2000년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안지민. (2012). 북한 영어 교과서 분석: 중학교 4,5,6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유명근. (2008). 북한 중학교 전학년 영어교과서 지문연구: 서구문화항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유희연, 김정렬. (2019). 북한 2013 교육과정 개정 전·후 영어교과서 코퍼스 기반 비교: 고급 중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603-622.

이나리. (2011). 북한 영어교과서 분석: 고등중학교 345학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이병민, 양현권, 권오현. (2005). 북한 영어교육의 실상. *외국어교육, 12*(4), 267-297.

- 이율희. (2015). 북한 일반 중등학교와 영재 중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 교.
- 이재원. (2014). 2000년대 이후 북한 영어교과서 변화 연구: 중학교 1,2학년 영어교과서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이현주. (2015). 탈북 학생들의 영어교육 증진 방안 연구: 영어교육 현장의 실제와 개선방향. *현대영어교육*, *16*(3), 231-250.
- 이효선. (2017). 남·북한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소영. (2010). 북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 정채관, 조정아. (2017). 김정은 체제 북한 중학교 교육과정 연구: 총론과 영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39*, 147-166.
- 정채관. (2018). 남북한 공통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32*(4). 47-82.
- 조규희. (2013). 개작 영어동화를 활용한 어휘 중심 초등 영어수업의 효과 연구. *초등영어교육*, 19(4), 215-248.
- 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 (2015).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조정아. (2016). 김정은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월간북한*, 90-95.
- 최죽송, 박철호, 오선해, 황철진. (2013). 고급중학교 1.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 하수지, 박기화. (2017). 어휘 학습전략을 활용한 영어 동화 수준별 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초등영어교육*, *23*(2), 143-169.
- 홍명의, 허근. (2011). 인터넷 영어동화를 활용한 초등영어 읽기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5*(1), 227-254.
- 홍정실, 김정렬. (2019). 북한 영어교과서의 통치 권력별 통시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599-619.
- 황서연, 김정렬. (2017). 북한 제1중학교 영어교과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1). 242-251.
- 황선희, 김지영. (2017). 영어 동화를 활용한 과업 기반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어휘학습, 어휘기억,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23*(2), 103-130.
- Dornyei, Z. (1994) Motivation and motivating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8, 273–284.
- Dubin, F., & Olshtain, E. (1986) Course design: Developing programs and materials for language learn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lay, H., Burt, M., & Krashen, S. (1982) Language tw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in, D., & Baldwin, R. (1986) Content-Based curriculum design in advanced levels of an intensive ESL program. *TESOL Newsletter*, 4(1), 1-3.

#### 주윤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대학원생 이메일: 188884@inu.ac.kr

#### 엄철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전화: (062)530-2440

이메일: cjuhm@jnu.ac.kr

Received on October 29,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24, 2019 주윤하 · 엄철주

Accepted on December 30, 2019